

1강 청소년소설이란 무엇인가?

1. 청소년소설의 ‘청소년’

청소년소설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합의조차 도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작품은 쏟아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회의론이 부상하면서 혼란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아동과 어른의 사이라는 청소년은 대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 참고로 국가기관인 통계청은 청소년을 9~24세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소설의 범주로써 ‘청소년’의 연령은 만 13세에서 18세까지로 설정해가고 있는 추세다. ‘1318소설’이 청소년소설의 대용어로 쓰이는 관행은 그러한 추세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소설을 가장 단순하게 정의한다면 13~18세 사람을 독자 대상으로 하는 소설이다. 13~18세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10대를 차별 없이 바라보는 관점이 부족한 사회적 통념을 고려한다면, ‘현행 교육제도하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설’이 청소년소설의 가장 정확한 범주라 할 수 있다.

2. 청소년소설에 대한 다양한 논의

-작가, 학자, 교사, 기자, 네티즌(일반독자)의 논의를 통해 청소년소설이 뭔지 느껴보자.

청소년소설에 대한 관심과 담론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이 뜨거움의 정체는 무엇인지, 언제 어디서부터 왜 타오르게 되었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타오를 것인지 분석하고 예측하느라 허둥대는 움직임이 감지된다.(중략) 특히 2008년도는 그동안 청소년소설에 지핀 불이 발강게 불기 시작한 의미 있는 한 해가 아닌가 생각된다.(중략) 청소년소설이란 과연 무엇인지 아직 그 정의조차 모호하다고 난감해 하는 이론가들의 진지함에 가볍게 코웃음 치며 발칙하고 당돌한 청소년소설은 이리 튀고 저리 튄다. 어린이와 어른 사이에서 정체성을 찾느라 방황하고 반항하는 청소년을 꼭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청소년소설은 본격적으로 세상과의 소통을 도모하고 있는 중이다. --윤소희(학자). 「‘성장’ 강조하는 청소년소설의 성장 가능성」, 『어린이책 이야기』, 2009년 봄호. pp.240~241.

‘완득아, 청소년소설이 뭐니?’에서,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대저 청소년소설이란 무엇인가. 청소년에 의한 소설인가, 청소년을 위한 소설인가. 그게 그거 아니냐고?’ 그리고 이런 말도 한다. ‘더욱이 우리는 일종의 유사품에 익숙한 참이다. 이를테면 성장소설이란 게 있고, 70년대엔 알개소설이 유행을 탔다. 뭐, 소년소설 학원소설 하이틴로맨스 따위도 있다. 한국문학은 아직, 이딴 것하고 청소년소설을 분간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읽었을 땐, 나름 흥미진진했다. 그래서 청소년소설이 뭐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정의를 내릴 건데? 그런데, 없다. 이 컬럼을 뒤집어서 탈탈 털어보아도 청소년소설이 뭔지 아무 이야기도 없다. 그냥 자기도 물음표 하나 찍고 말아버린다.--중앙일보 ‘손민호의 문학터치’ 「완득아, 청소년소설이 뭐냐?」(2008. 4. 3)에 대한, 네티즌 블로그 ‘초록불의 잡학다식<http://orumi.egloos.com>’에 게재된 비판글,

작금의 청소년문학판을 보면 가히 춘추전국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과열되어 있다. (중략) 문학상 공모를 통과한 신인 작가들은 물론 이런저런 계기로 청소년문학판에 뛰어든 기성 작가들도 열이면 열 모두 자기만의 독특한(?) 청소년관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내놓는다. 돌릴 것 없이 바로 얘기하자면, 대부분의 작가들이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서둘러 작품을 쏟아내기 때문에 요즘 청소년소설은 청소년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는 것이 문제이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청소년을 쉽게 정의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과도하게 투영한 탓에 그리 되었다. --박상률(작가), 『청소년 문학의자리』, 『내일을 여는 작가』, 2009 여름호. p.80.

청소년소설은 작가가 주도하기보다는 출판사가 주도하고 있다. 출판사가 작가들에게 청소년용 소설을 써달라고 주문을 하고 작가가 이에 응해서 쓴 작품들이 많다. (중략) 그러다 보니 청소년소설이란 말에 걸맞은 형식과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에 앞서 일단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야기를 쓰면 되겠지 하는 손쉬운 생각을 하기도 한다. 본격소설을 쓰는 틈에 잠시 짬을 내서 청소년소설을 쓰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다. --박일환(작가, 교사), 『청소년문학의 현황과 과제』, 『내일을 여는 작가』, 2009 여름호. p.95.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현 단계 청소년소설은 여전히 작가의 경험과 독자의 경험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듯하다. 여전히 성장소설의 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인물 역시 동시대의 인물과 일정한 거리를 둔, 작가의 성장하는 시기와 조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경험과 경험하는 세대를 따지기에 앞서, 새로운 정체성의 모색을 향한 날카로운 전복적 상상력을 충분히 담지하고 있는가가 한층 중요한 화두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설 경우, 현 단계에 대한 평가 역시 여전히 유보적임은 어쩔 수 없다. --김상욱(평론가), 『전복적 상상력으로서의 청소년문학』, 『내일을 여는 작가』, 2009. 여름호. pp.72~73.

소설은 1위부터 10위까지 성장소설 일색이었다. 성장소설은 한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꿈과 희망, 부분적인 성취와 좌절을 통해 개인의 보편적 교양, 곧 자기실현을 위한 길을 제시하는 소설이다. 하지만 요즘은 아이들이 성장통을 앓을 기회를 원천봉쇄당해서인지 성장소설이 예전처럼 팔리지 않는다. 물론 ‘보릿고개 시절’을 다룬 ‘대한너우스’ 식 성장소설이나 외국의 성장소설이 아이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했을 수도 있다. (중략) 이런 책들은 결코 아이들의 실존적 고민을 근원적으로 해소해주지 못한다. (중략) 신나게 뛰어놀 공간도 없을 뿐 아니라 핵가족화, 맞벌이 등으로 대화할 상대조차 없다. 그들에겐 그들만의 고민을 담은 성장소설을 안겨주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키워주어야 하지 않을까?--한기호(기자), 『‘성장소설’이 팔리지 않는 시대』, 한겨레신문, 2008.3.28.

- 생생한 캐릭터와 발랄한 문장 -꼼꼼한 취재와 이에 따른 치밀한 묘사
- 매서운 사회 인식 -묵직한 사회 현안을 무겁지 않게 처리하는 솜씨
- 시종 밀고 당기는, 인물과 인물 사이의 관계 설정은 차라리 노련’ --손민호(기자),

「완득아, 청소년소설이 뭐냐?」, 중앙일보. 2008.4.3.

3. 문학상 공모요강과 심사평으로 살펴본 청소년소설

--고액의 상금을 내건 청소년문학상의 공모요강과 심사평을 통해 청소년소설의
뭔지 구체적으로 실감해보자.

문학상명칭: 세계청소년문학상(3회) / 주최: 세계일보사

취지: 청소년에게 꿈과 용기를. 청소년은 물론 성인까지 아우를 빛나는 작품을 기대

모집부문: 200자 원고지 700매 안팎 / 시상내역: 고료 당선작 5천만원

제2회 세계청소년문학상 심사평, 수상작: 전아리의 『직녀의 일기장』

당선작으로 뽑은 ‘직녀의 일기장’은 당돌하고 발칙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청소년들의 ‘싸가지 없음’에 대한 현사라고 할까.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십대 후반 고교생의 일상을 이만큼 예리하게 파악한 소설은 거의 없었다.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사사로운 에피소드도 이 작가의 문장 속에 들어오면 유쾌해진다. 경쾌한 구성, 속도감 있는 단문, 세련된 묘사감각, 시적인 장면전환도 볼 만하다. 그만큼 말을 다루는 솜씨가 능수능란하고 농익은 수준에 이르렀다. 장편으로서 극적인 구조와 중심 서사가 부재하다는 흠도 지적되었으나 우리는 작가의 장인적 글쓰기에 더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전아리라는 작가의 출현이 한국문학에 하나의 신선한 사건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소설에서 멀어진 독자를 문학의 자장 안으로 끌어당기는 역할도 거뜬히 해주기를 부탁한다. --제 2회 세계청소년문학상 공모요강과 심사평(2008.5.1). [심사위원: 김주연 서영은 김정연 이순원 원종찬 은희경 안도현]

문학상명칭: 사계절문학상 / 공모취지: 십대들에게 자양분이 될 수 있는 본격문학선 '사계절 1318문고'를 출간하여 1318 독자들과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랑과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주)사계절출판사는 우리 작가들에게 청소년문학의 창작 정신을 북돋우고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사계절문학상을 제정했습니다. 한국 청소년문학의 앞날을 이끌어 나갈 역량있는 작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 부문: 13~18세 청소년이 읽을 수 있는 장편소설로, 미발표 창작물. 200자 원고지 700매 안팎 / 시상내역: 상금 2천만원(선인세)

제6회 사계절문학상 심사평, 수상작. 『열일곱 살의 털』. 김해원

「열일곱 살의 털」은 이상한 작품이다. 별로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작품인데 읽다 보면 ‘이상하게도’ 재미있다. 주인공은 문제아도, 장애인도 아니다. 평범한 아이다. 눈물 날 만큼 감동적인 이야기도 없으며, 대단한 모험을 겪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재미있다. 소설 읽는 맛이 살아 있다. 집중력에다 재미있는 에피소드, 평범해 보이지만 독창적인 캐릭터, 은근한 유머가 더해지자 독특한 작품이 탄생했다. 남자아이들의 이야기를 힘있게 그려낸 것은 근래 보기 드물었던 특별한 재능이라 할 만하다. 이 작품을 읽고 나면 누구나 자신의 털 이야기가 하고 싶어질 것이다. --사계절문학상 공모요강 및 제 6회 사계절문학상 당선작심사평. 심사위원: 오정희, 박상률, 김중혁

문학상명칭: 2009년 창비 청소년문학상(3회) / 주최: 창비

취지: 한국문학과 어린이문학의 흐름을 이끌어온 창비에서 진정한 청소년문학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공모입니다. 청소년 독자를 대상으로 쓴 미발표 장편소설을 대상으로 하며, 신인과 기성작가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모집부문: 청소년을 대상독자로 한 미발표 장편소설. 200자 원고지 800매 내외.

시상내역: 원고료 2,000만원과 유럽 문화예술 탐방 기회 제공.

제1회 창비청소년문학상 심사평, 수상작 『완득이』 김려령

김려령의 『완득이』는 첫 문장부터 독자의 눈을 사로잡아 마지막 장을 덮을 때까지 놓아주지 않는다. 회화적인 인물 설정과 리드미컬한 대화,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유머는 잘 읽히는 수준을 넘어, 눈앞에서 곧장 만화 페이지가 넘어가는 느낌마저 준다. 집도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지만, 싸움만큼은 누구한테도 지지 않으며 온실 속 화초라면 절대 알 수 없을 생활감각과 인간미를 지닌 완득이는 그간 국내 청소년문학에 늘 아쉬웠던 활력 만점의 소년 주인공이다. 도시 빈민가, 장애인, 이주 노동자 등 자칫 과중한 무게로 느껴질 수 있는 한국 사회의 그림자들도 완득이를 통과하면 정감 있고 활기찬 이웃의 얼굴로 다가온다. 주인공 완득이의 철천지원수였다가 점차 ‘사랑스러운 적’으로 변모하는 괴짜 선생 똥주도, 존경 아니면 환멸의 대상이었던 교사상을 보란 듯이 비웃으며 독보적 개성미를 뽐낸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되 그로부터 5센티미터쯤 떠올라 경쾌하게 춤추는 이 이야기는 청소년 독자는 물론이거니와, 재미와 감동을 함께 추구하는 젊은 독자들에게도 큰 반향을 얻을 것이라 믿는다. 창비 청소년문학상 공모요강 및 창비청소년 문학상 당선작 심사평. --심사위원: 원종찬 공선옥 김연수 박숙경

4. 청소년소설의 장르성과 전략

특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널리 퍼진, 본격문학과 변별되는 흥미 위주의 대중문학. 대중의 취향에 부합하려는 성격으로 인하여 서사 문학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SF소설, 추리소설, 무협소설, 판타지소설, 로맨스소설, 인터넷소설, 공포소설, 칙릿(chick-lit)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 이후 본격문학과 장르문학의 대립적인 설정은 급속하게 붕괴되기 시작한다. 즉 본격문학은 위축되는 반면 장르문학에 대한 대중적 수요는 증가하며, 작품성과 흥행성을 두루 갖춘 장르문학 작품이 발표되면서 그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본격문학에서 장르소설의 요소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백년의 문학용어사전』, 아시아, 2008, ‘장르’·‘장르문학’. p.625~627.

성장서사를 극복하고 청소년 독자층에게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독자층을 세분할 필요가 있다. 모든 청소년을 만족시키겠다는 과욕을 부리기보다 청소년독자의 다양한 분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① 초등학교 때 독서경험이 풍부한 독자
- ② 초등학교 때 독서경험이 일천한 독자

- ③ 독서를 스트레스 해소, 시간 때우기 등으로 여기는 독자
- ④ 흥미나 재미를 추구하는 독자
- ⑤ 지식의 습득이나 교양의 함양 수단으로 삼는 독자
- ⑥ 논술 훈련과정으로 여기는 독자
- ⑦ 수능 언어영역의 문제해결 능력 배양에 주안점을 둔 독자
- ⑧ 작가를 지망하여 문학수업의 한 과정으로 여기는 독자
- ⑨ 현실 인식의 수단으로 삼는 독자
- ⑩ 리얼리즘 독자
- ⑪ 모더니즘 독자
- ⑫ 자기계발서나 에세이를 밝히는 독자
- ⑬ 희곡이나 드라마 시나리오를 밝히는 독자

청소년 독자를 얼마든지 세분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막연히 모든 청소년을 독자층으로 상정하는 것보다, 세분하여 그 중에 주요 타깃 독자층을 설정하고 창작에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정 청소년 부류의 취향에 부합하는 것 이외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 초등학교 때 독서경험이 풍부한 독자를 만족시키는 소설로, 초등학교 때 독서경험이 일천한 독자까지 두루 만족시키겠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바람이다. 리얼리즘 취향의 독자에게 모더니즘 소설은 재미가 있을 수 없다. 반대로 모더니즘 취향의 독자에게 리얼리즘 소설은 천박하게 여겨질 수 있다.

여기에 청소년소설의 주요한 독자군으로 학부모와 교사들을 추가해야 한다. ‘어른이 읽는 동화’처럼 청소년이 읽어도 바람직하고 어른이 읽으면 더 바람직한 ‘어른이 읽는 청소년소설’이 강력히 요구 되는 것이다.

작가가 독자의 비위를 고의로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비위를 맞추고 취향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가장 원만한 해결책은 작가 자신의 취향부터 생각하는 것이다. 먼저 자기가 쓸 수 있는 소설을 기획하고, 그 기획을 환영해 줄 만한 독자층을 고려해야 한다. 작가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알아서 그 취향의 독자가 있든지 말든지 할 것이다, 라는 무책임한 논리가 아니다. 작가가 쓰고 싶은 것을 쓰되, 그가 만나고 싶은 독자층의 취향과 수준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